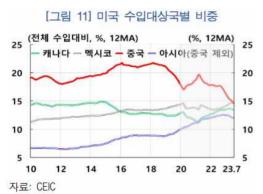
□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아래 주제에 대해 논의하시오.

<문제> 미-중 무역분쟁과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다. 이 과정에서 <u>탈세계화</u> (deglobalization), 혹은 세계 경제의 다극화(multipolarization)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탈세계화가 우리 경제에 불러올 잠재적인 <u>긍정적, 부정적인 효과</u>에 대해 논의하시오. 또한 탈세계화의 <u>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시오.</u>

<제시문>

7. In 2019, Morgan Stanley Research outlined how secular trends and trade tensions were, together, slowing globalization and potentially reversing it, in a concept that's been referred to "slowbalization." One year later, this idea of slowbalization is no longer theoretical. Geopolitical tensions—coupled with the COVID-19 pandemic—have contributed to, and been exacerbated by, an about-face in globalization. This trend could pave the way for a new economic dynamic called multipolarity, which w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global business strategy and the investment landscape.

나. 글로벌 수출입 또한 미-중간 교역을 중심으로 분절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2018년 미-중간 무역분쟁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과거 20% 수준에서 최근 15%대로 하락한 가운데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등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2020년을 전후로 크게 하락한 반면 중국이 장기간 대규모 해외투자를 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들로의 수출은 빠르게 늘어났다.





다.

Suez's importance to global container trade

Exhibit 14: Reminder of the key statistics around the disru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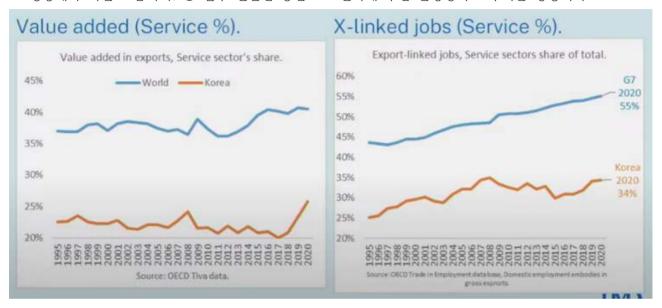
Са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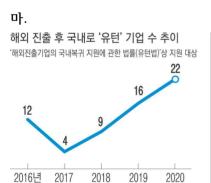
Suez Canal vs. Cape of Good Hope shipping ro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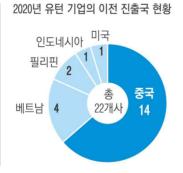
Source: Global Maritime Hub,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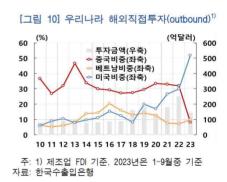
라.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에서 최근에는 리스크의 원천으로 바뀌면서, 지정학적 블록화·지역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시작된 상품 교역 증가세 둔화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 교역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교역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① 지정학적 긴장 ② AI 주도 디지털 혁신, ③ 서비스 교역 확대, ④ 기후변화 대응 등이 미래 공급망의 모습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급망 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공급망 관점에서 우리 경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는 ① 생산구조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고, ②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③ 서비스 수출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더딘 모습이며, ④ 일부 신산업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 안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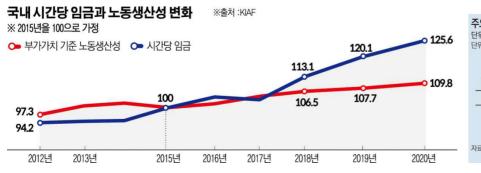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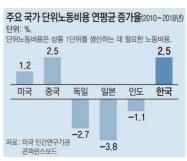
(11월25일 현재)





바. 국내 기업의 높은 노동비용이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복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들어 1인당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2배 빠르게 오른 탓에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단위노동비용 증가는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보다 더 올랐다는 의미다. 높을수록 제조원가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고밴	페이지입니다.	여슩장이로	사용하셨지?
\Box	0 🖺		ᆫᆸᇰᆖᆂ	시으러 되시고: